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

이은희<sup>†</sup>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Exploring the Direction of the 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Lee, Eun Hee<sup>†</sup>

*Professor,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innovative task shoul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lothing life education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time to prepare for a major shift in the educational paradigm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everyone, based on social innovation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ransition to the post-corona era. This study examined the literatur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examined the curriculum focusing on the clothing life with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clothing life educ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various literature includ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lothing life educat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2015 revision were analyzed.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the 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is proposed as follows: First, nurturing convergence education experts that can combine human emotion, environment, and clothing life cult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second, developing a 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that links software competency and practical problem-solving competency; and lastly, implementing fashion maker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value-oriented clothing life educ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in 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is proposed, and that this educational discussion process will help establish the identity of clothing life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Key words: 미래교육환경의 변화(future education environment change), 의생활교육과정(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의생활교육방향(direction of clothing life education)

---

<sup>†</sup> 교신저자: Lee, Eun Hee,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54538, Korea  
Tel: +82-63-850-6589, E-mail: ehlee@wku.ac.kr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I. 서론

미래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걸친 변혁이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Jho, 2017; Ko,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MOE], 2021)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 교육 체제 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전통적 교실 중심교육에서 탈피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과 맞춤형 역량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 체제 추진단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 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공시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 이유로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MOE, 2022). Seong(2017)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 교육과정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전달, 학교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통합을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실천 등을 강조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쓸모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육과정 역시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과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고종 32년(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재봉이 포함

되고부터이다(Lee, 2000). 초·중등교육에서 의생활은 주로 ‘옷’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의생활영역구분에서 Ko(1990)는 의생활계획, 피복재료, 피복구성, 옷차림, 염색 및 수예 편물로, Lee(1993)는 의복재료, 의복구성(바느질포함), 의복관리(세탁, 염색, 보관), 의복차림, 복식사, 자수, 편물, 의생활기기, 의복경제(구매, 생산, 판매), 의생활 관련 산업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정과교육에서 의생활교육내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교과와 통합되어 주로 생활기술 영역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의·식·주·가족·소비생활을 통합한 가정생활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의생활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교육적 내용보다 1인 1기의 직업교육적 내용이 강조되었던 제1차에서 3차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은 주로 재봉, 수예, 편물 등의 실기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가정과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을 본래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바느질하기’의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만 인식하였다(Hwang & Chong, 1995; Lee & Jean, 1994; Lee & Shin, 1997; Pak & Lee, 2002; Pak & Lee, 2003; Ryu, 2014; Seong, 1994). 또한 ‘바느질하기’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인식하였으며(Kim, Jung, & Shin, 2003; Shin, Kim, Oh, Cheong, & Chung, 1997), 남학생들의 의생활실습에 대한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가 낮았다(Ju, Lee, & Han, 2006). 이것은 의생활교육내용 중 ‘바느질하기’가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양성평등교육적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필요성을 담론화시켜 사회적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있지만,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의생활교육내용 중 ‘의복제작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다(Kim, Ryu, Kwak, & Choi, 2003; Lee, Kim, An, & Lee, 1996). 또한 의복을 재활용하여 간단한 의복을 만들어보는 단원에 대해 학생들은 ‘바느질하기’의 단순 기능적 수습활동으로 보고 환경교육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Lee, Bae, & Lee, 2009). 특히 재봉틀 사용법은 중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Jang & Jo, 1995),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6학년 내용에 재봉틀다루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Pak & Lee, 2002).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래 교육환경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개성 표현 가능성의 증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 적응성 향상,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활용을 통한 현실과 가상의 결합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의생활교육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미래 초·중등교육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특징과 이제까지의 의생활교육과정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로 제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현장에 대한 논의와 양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론함으로써, 교육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Krippendorff, 2018; Pak & Lee, 2002)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의생활교육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2008)가 발표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 기준안은 의생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를 제시한 것으로서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미래 교육환경과 의생활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헌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의생활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가정과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미래 교육환경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Lim, Ryu, & Kim, 2017; Park & Ahn, 2018).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Park, 2022; Seong, 2017; Shin & Jung, 2019),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의 방향을 탐색(Ryoo & Kang, 2018)하기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며,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정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화의 2차 산업혁명, 정보화의 3차 산업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O2O(Online to Offline) 등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를 들 수 있다(Schwab, 2016, 2016, January 14).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생산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문화의 전영역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이버 보안과 다양한 센서, 그리고 사이버 물리적 체계로서의 기계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의 중요성, 인간의 권한 등을 들 수 있다(Albert, 2015; Chae, 2017; Schwab, 2016, January 14; Song, 2017).

또한 세계는 현재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지칭하는 포스트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는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post)와 코로나 19(Corona-19)의 합성어로서, 코로나 19 극복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의 감염자가 급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이어지자,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의 대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운

데 온라인 기반의 소통과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온라인 경제 가속화,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이와 같은 디지털이 가속화되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재택근무·화상회의·온라인 수업 등이 현실화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초연결, 초지능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Oh, 2020; Yeo, 2020). Jo와 Seo(2021)의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을 코로나로 나타난 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탈경계, 랜선적 연결, 다양성, 복잡성, 경험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속도가 교육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는 결국 학교교육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 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Figure 1>과 같이, 그 비전으로 ‘세계 일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창의 혁신 인재양성’을 제시하였다.

교육목표로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한 핵심가치로는 학습자의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 실현을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목표로는 인간존중을, 교육내용으로는 역량중심교육과 인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방법이 강조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학기술 창조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시에 갖추고 올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교육도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MOE(2020)의 발표에서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목표로는 ‘미래교육체제 준비를 위한 디딤돌 과제 구체화’를 들었으며, 미래 변화에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과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다. 또한 핵심가치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 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섬유산업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특히 방직기술이 자동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그 후 1차 산업혁명은 당시 현존하였던 모든 산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시기에는 고전주의적 교육인 행동주의가 중심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지 이론의

<b>Vision</b>	● <b>Cultivating future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to lea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b>
<b>Goal</b>	● <b>Education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urture future creative and innovative talents with global competitiveness</b> ● <b>Education that respects individual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happy life and a healthy society</b>
<b>Core values</b>	● <b>Realize the creativity,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learners</b>
<b>Direction</b>	● <b>Future education system, future school, future education content, future education governance innovation</b>

Figure 1. Goal and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교육내용이 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을 몰고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생산의 기계화를 가져왔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생산의 대량화를, 3차 산업혁명은 전자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율화를 이룬 정보화가 특징이다. 컴퓨터 기반 교육이 중심이 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의 과도기인 현재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이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콘텐츠의 변화로 인해 인성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도전 의식과 창의성 교육, 소통을 중시하는 자아 정체성 교육, 감성적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중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과학기술 활용 교육 등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진로 교육,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문학적 성찰, 체력 증진을 위한 교육, 예술 활용 체험형 교육, 학교와 기업 간의 상생적 산학협력 강화 등도 들 수 있다.

요약해보면, 미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과학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미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III.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의생활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며, 가르치고 배울 내용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논의는 결국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상과 그에 따른 교과 역량 등에 교육의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학교 의생활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중등 의생활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분석 자료는 <Appendix>에 제시하였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 목표에서는 ‘국민학교 실과의 목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와 직업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과 지식을 얻어서, 부지런한 성격을 길러 가정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협력하고 활동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함에 있다.’로 설정하고, 교육내용은 크게 일감, 기능, 이해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실과 의생활교육내용은 4학년 재봉 뜨개, 세탁, 5, 6학년에는 여기에 염색이 추가되었다. 5학년 간단한 의류만들기(손수건, 앞치마)와 6학년 간단한 뜨개(장갑, 양말, 간단한 재봉(양말, 버선, 앞치마), 수놓기 등의 기능에서는 남녀 구분하여 여학생만 학습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일감 수기공작영역에서 실뿔기, 편물, 염색, 재봉, 지수, 수리, 습식, 건식, 얼룩빼기, 기타 수리 등이, 기계 조작에서는 재봉기계 부리기가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가정 성격에서는 ‘「가정」이라 하면 세인(世人)의 대부분의 고통해서 바느질과 음식 만들기로 바로 넘겨짚는다. 이것이 결코 「가정」이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둔다. 가족의 건강을 도울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의 위안을 꾀할 수 있는 가의 계획적이며 연구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가정」의 성격이며 일품요리의식의 기술의 숙련만을 요구치 않는 점인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바느질하기가 숙련된 기술습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적 측면이 아닌, 의생활에서 다루는 모든 일들은 가족중심의 가사(家事)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재봉교사가 재봉만 지도하기 때문에 가정과 담당교사들이 합의하에 단원을 작성하고 재봉에 필요한 기능과 요소를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피복생활 영역 하에 의복의 원료, 재봉,

한복과 양복, 수예, 수놓기, 세탁, 염색물들이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재봉에서는 양복과 한복뿐만 아니라 남녀아동 의복, 작업복, 부인용 의복, 내의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는 학년별로 4학년 바느질과 수예, 5학년 옷 손질하기와 빨래하기, 6학년 옷 만들기과 물감들이기, 재봉틀 손질하기 내용도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1-3학년 모두 의생활과 수예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시기부터 교육과정상 ‘의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의생활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이 새로이 제시되었는데, ‘의복 생활을 계획성 있게 하며, 용도에 따르는 의복 종류 및 옷감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치에 흐르지 않는 건실한 의복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아울러 가정경제, 국가 경제를 고려하게 한다.’, ‘의복을 갱생 이용하게 하며 학습 재료는 헌옷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늘, 실, 기타 재료 용구의 사용법을 합리적으로 하게 한다.’, ‘경험으로 하여 온 방법, 어림수, 눈어림 등 비과학적인 점을 개량하게 한다.’, ‘물건을 만듦에 있어 아름답게 하는 동시에 빠르게 하는 방법을 지도 하며, 실용적인 미를 발견하여 응용하게 한다.’, ‘의생활의 조화, 통일된 미를 알리기 위하여 시각적인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등으로 당시의 경제개발에 역점을 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 가정과 일반관리 가정일반을 살펴보면, 지도생활에서 의생활은 ‘의복의 재료, 및 그 생산 상태, 의생활의 방향을 알려서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에 맞는 합리적인 의생활의 운영 관리의 능력을 양성하게 한다.’로 설정하고, 의생활교육내용으로는 의복의 목적, 의복의 원료, 직물과 의복, 피복 관리, 앞으로의 의복생활, 몸차림(미용포함), 의복만들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생활에서 미용이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의복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줄 알게 하며 용도에 따르는 직물, 의복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건실한 의생활을 운영하여 가정경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며 생산자를 리이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재봉, 수예 실습을 통하여 물건을 분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도를 알린다.’, ‘구성과 색채 배합 등 미의 요소의 배치, 배색 등을 전반에 걸쳐 지도한다.’, ‘미용은 따로 항목을 설치하지 않고, 의생활의 몸차림에서 미용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한다.’이다. 중학교와 같이, 경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는 4학년에 ‘의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현명한 선택, 구입, 소비, 관리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재봉 세탁영역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옷입기와 손질하기, 단추달기, 걸레 만들기 등 간단한 바느질하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5학년은 ‘의생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간단한 의복 등에 관한 기능을 습득시켜 생활 합리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활용하게 한다.’는 목표하에 재봉 세탁영역의 빨래 용구, 세제의 종류와 분량 알기 및 속옷 등의 빨래하기와 다리미의 종류 알아보기, 천에 따라 올바르게 다듬질하기, 의복의 간단한 수선 등이 제시되었다. 6학년은 ‘의식주 관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길러 성실하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 목표하에 기계 기구 조작영역에서 재봉틀 등 기계 기구의 손질과 관리 내용이, 5학년에서와 같이 재봉 세탁영역에서 옷을 계획성 있게 마련하기, 바느질하기, 옷감의 성질과 쓰임새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가정 1학년에서 ‘자신의 일상복 활용상의 실질적인 기준을 이해시키고, 옷의 손질 방법, 바느질의 기초적 기능 등을 습득시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를 목표로 설정하고, 내용으로 옷차림, 평상복의 손질과 수리, 앞치마만들기가 제시되었다. 2학년은 목표로 ‘옷 손질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넓혀서, 가족의 의생활에 협조하게 한다.’를 의생활영역으로 빨래, 옷의 수리와 재생, 스커트만들기를 제시하였으며, 3학년은 ‘옷의 선택과 구입, 옷과 생활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서, 옷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며, 의생활을 분수에 맞게 영위하도록 한다.’로 목표를 설정하고, 옷의 선택(옷의 종류, 용도, 선택법), 옷감, 옷과 옷감 사들이기, 블라우스만들기, 수예, 옷과 생활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의 의생활, 수예로 구분하였던 것을 의생활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부터 의생활교육내용은 가정과목보다는 가사과목에서 많이 제시되었으며, 2, 3학년에 재봉, 수공예로, 재봉에서는 복장의 형태, 기초·부분바느질, 블라우스·치마·저고리·원피스·잠옷(파자마)만들기, 수공예에서는 자수, 편물, 염색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교육목표는 따로 설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의생활, 의재료의 선택, 의생활 경영의 능률화, 의류제작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기사에서는 한재(한복의 특색·설계·재단·봉제), 양재(양복의 특징, 양재 설계·재단·봉제), 편물(편물의 특색 및 용도, 편물 재료와 공구, 편물 설계, 수편물, 기계편물, 편물 봉제), 자수(자수의 특색 및 용도, 재료의 용구, 자수 도안, 자수, 자수 제품의 뒷손질과 보전법)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기사 지도상의 유의점에 ‘지역 사회의 요청과 학교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화, 염색, 목각, 봉제 완구 또는 그 밖의 향토적인 수공예 등을 배정 단위 중 2-3단위 범위 내에서 지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수공예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과목목표에서 의생활이 아닌 가정생활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에서 4학년 생활계획과 관리, 생활기능, 소비와 절약, 일과 직업 이해로 구분되었으며, 의생활내용은 생활계획과 관리에서 옷장정리, 생활기능에서 기초바느질, 옷입기와 손질하기가 제시되었다. 5학년에서는 학년목표에서 ‘의생활의 초보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고, 계획적인 작업과 관리를 통하여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로 제시되었으며, 생활기능에서 간단한 바느질, 빨래하기가, 소비와 절약에서 옷감의 품질 내용이 제시되었다. 6학년에서는 생활계획과 관리에서 의생활의 계획, 생활기능에서 헌 옷의 재생, 소비와 절약에서 의복의 선택과 구입 내용이 제시되었다. 6학년에 헌 옷을 활용하여 일용품을 만드는 내용이 새로이 제시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가정교과 목표에 ‘의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로 설정하였다. 1학년 학년 목표에서 의생활교육은 ‘의복의 기능과 용도, 의류 재료의 종류와 특성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기능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내용으로 청소년의 의복영역에 옷차림, 옷감, 앞치마만들기가 제시되었다. 기존의 의생활 영역은 청소년의 의복으로 변화되었다. 2학년에서는 ‘개인에게 적합한 의복의 선택 방법과 의복 구성 및 관리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를 목표로 설정하고, 내용으로 1학년과 같이 청소년의 의복에

의복 마련하기, 의복 견사하기를 제시하였으며, 의복마련하기에서 스커트만들기가 제시되었다. 또한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 ‘청소년의 의복’영역은 2개 학년에서 반복하여 다루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였고, ‘간단한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기초로 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역점을 두어 지도한다.’로 되어있어 소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기사에서는 재봉(블라우스만들기, 한복차림, 동정과 치마허리 달기), 수예(자수, 수편물)이 제시되어 3차 교육과정보다는 내용이 다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는 ‘재봉영역에서는 실습 제재별로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기본 기능이 반드시 습득되도록 지도하고, 수예 영역에서는 기본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되, 한 가지 실습 제재에 배당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되어 있어 실습교육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목표에 ‘의류 재료와 의복 구성의 원리 및 의생활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올바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있어 의생활교육을 의류 재료, 의복 구성, 의생활 관리로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용으로는 의생활의 의미,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의류 재료,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복의 손질과 보관 등으로 구분하여, 중학교에서 청소년의 의복으로 영역을 제시한 것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의생활영역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기사는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로 구분하여 한국의복에서는 한국복식의 변천과 종류, 한복의 디자인, 한복만들기(치마, 저고리, 버선), 서양의복에서는 서양 복식의 변천과 종류, 서양 의복의 디자인, 서양 의복 만들기(슬랙스, 원피스 드레스), 수편물에서는 수편물의 디자인, 수편물 만들기가 제시되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 실과는 의생활교육 목표가 따로 설정되지 않았고, 의생활교육내용은 생활계획과 관리, 생활기능, 소비와 절약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4학년은 옷장정리, 기초바느질, 옷입기와 손질하기, 합리적인 의생활이, 5학년은 빨래하기, 깨끗한 몸차림, 바느질하기, 옷감의 품질이, 6학년은 헌 옷의 활용, 의복의 선택과 구입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실과는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견사하기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의생활교육내용은 3학년 견사하기 영역 옷개기, 걸기, 보관하기, 옷차림 바르게 하기,

4학년 다루기 영역 바느질 용구 다루기, 만들기 영역 바느질(흙질)로 용품 만들기, 5학년 다루기 영역 바느질용구 다루기 영역 만들기 바느질(박음질, 단추달기)로 용품 만들기 내용이 제시되었고, 6학년은 제시되지 않았다. 중등학교 가정은 성격에서 가정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 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중학교는 1학년에 의복의 의미, 상황과 의복, 의복의 착용법, 소품만들기가, 2학년에 의복계획, 섬유의 혼용률, 취급, 치수의 표시, 기성복의 마름질, 바느질 평가 내용이 제시되었다. 3학년은 의생활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영역별 방법이 제시된 것이 특징으로 의생활 영역은 ‘실생활에 관련된 실습을 통하여 지도한다.’로 되어있다. 고등학교는 의생활관리로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옷감의 섬유·조직·가공과 의복의 성능, 의류의 세탁과 보관, 의복구성기초, 간단한 의복의 제작 등이 제시되었다. 기사에서는 의복구성과 자수가 통합되어 한국의복과 서양의복구성의 기초, 부분, 장식바느질, 한국수와 서양수의 기초, 한국의복과 서양의복의 제작 등으로 제시되었다.

7차 교육과정부터 실과(기술·가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실과에서 의생활교육은 생활기술영역에 5학년 간단한 생활용품만들기(스킬자수, 뜨개질, 손바느질),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에서 옷장 정리하기가 제시되었고, 6학년은 생활기술영역에서 재봉틀다루기(기초박기, 간단한 생활용품만들기)가 제시되었다.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의생활교육은 8학년에서만 생활기술영역에 의복마련과 관리(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옷만들기와 재활용, 옷의 손질과 보관)로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의생활교육이 따로 제시되지 않고,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 가정생활의 설계에서 의생활문화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생활기술영역 가정생활의 실제에서는 직물을 이용하여 커튼, 식탁보 등 간단한 생활용품 제작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정과학에서 의생활영역에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가 제시되었다.

2007 개정에서 실과(기술·가정)은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실과는 가정생활영역에서 5학년 옷

입기와 관리하기(나의 생활과 옷차림, 나의 옷 관리), 6학년 간단한 생활용품만들기(손바느질로 덧소매, 주머니, 받침 등 생활용품만들기, 대바늘, 코바늘, 재봉틀, 수예바늘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만들기)가 제시되었다.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7학년 청소년의 생활(옷차림과 자기표현), 8학년 가족의 생활(의복의 선택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옷 만들기과 고쳐 입기)가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의생활문화가 제시되었다. 가정과학에서는 의복과 패션 영역에서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만들기와 코디네이션이 제시되었다.

2009 개정에서 초등학교 실과(5-6학년군)는 가정생활영역에서 나의 자립적인 의생활(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 스스로 하는 옷 관리)과 창의적인 의생활의 실천(생활 속 형질 용품 만들기, 환경과 나눔의 친환경수세미, 인형, 아기모자 등 생활용품만들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기술·가정(1-3학년군)은 가정생활영역에 청소년의 생활(옷차림과 자기표현),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의복선택과 구입,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 의복구성원리 이해,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이, 고등학교에서는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정과학에서는 패션과 의생활 영역에 패션의 이해와 스타일링, 패션과 첨단 기술,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의생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이 학교현장에서 보다 많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5 개정에서는 실과(기술·가정)은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실과(5-6학년군)는 가정생활과 안전에서 옷입기와 의생활 예절, 생활 소품만들기, 안전한 옷차림의 내용이, 중학교(1-3학년군)도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 옷차림과 의복마련, 자원관리와 자립영역에 의복관리와 재활용 내용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내용이, 진로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자원관리와 생활문화영역에서 패션의 이해와 스타일링, 의류마케팅의 실제, 의생활 관련 직업·진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



가원과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2008)가 발표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의생활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영역 상세화에 제시된 의생활교육내용의 분류는 <Table 1>과 같이, 의복재료와 관리영역에서는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관리, 의복과 환경이

고, 의복의 제작과 선택 영역에서는 의복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문화이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제까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생활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실과는 주로 옷입기, 의복관리, 수공예

Table 1. Analytical standard for curriculum contents

Area	Content element	Detailing the content
Clothing materials and management	Understanding of clothing materials	Fiber type and properties, thread types and properties, types and properties of fabrics, manufacturing of textile fabrics, dyeing, etc.
	Clothing management	Washing clothes, dyeing, stain removal, storage of clothes, ironing, etc.
	Clothing and environment	Clothing and human physiology/health, the interaction of clothing and the environment, sustainable clothing life, etc.
Clothing making and selection	Clothing design	Elements of clothing design, principles of clothing design, fashion coordination and dressing method, etc.
	Making of clothes and household items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and sewing, clothing recycling(reform), hanbok construction, handicraft knitting, embroidery, making household items, understanding of the apparel industry and related jobs, etc.
	Clothing selection and self-expression	Motivation for wearing clothes and their functions, dress according to the occasion, clothing and self-concept, body image, symbolism of clothing and fashion, clothing conformity and individuality,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etc.
	Costume culture	Culture/costume type and costume culture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western costume history, korean costume history, etc.

Sour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2008).

Table 2. Distribution of clothing education contents by analysis standard

Division	Clothing materials and management			Clothing making and selection			
	Understanding of clothing materials	Clothing management	Clothing and environment	Clothing design	Making of clothes and household items	Clothing selection and self-expression	Costume culture
1st	ES	○			○		
	MS	○	○		○	○	
	HS		○		○		
2nd	ES		○		○		
	MS	○	○		○	○	
	HS	○	○		○	○	○
3rd	ES	○	○		○	○	
	MS	○	○		○	○	
	HS	○	○		○	○	○
4st	ES	○	○	○	○	○	
	MS	○	○		○	○	
	HS	○	○		○	○	○

Table 2. Continued

Division	Clothing materials and management			Clothing making and selection			
	Understanding of clothing materials	Clothing management	Clothing and environment	Clothing design	Making of clothes and household items	Clothing selection and self-expression	Costume culture
5st	ES	○	○		○	○	
	MS	○	○		○	○	
	HS		○	○	○		○
6st	ES		○		○	○	
	MS	○		○	○	○	
	HS	○	○		○	○	○
7st	ES		○		○		
	MS		○		○	○	
	HS	○	○	○	○	○	○
2007	ES		○		○	○	
	MS		○		○	○	
	HS	○	○	○	○	○	○
2009	ES		○	○	○	○	
	MS			○	○	○	
	HS			○			○
2015	ES				○	○	
	MS		○	○	○	○	
	HS			○	○		○

\* ES: Elementary School, MS: Middle School, HS: High School

에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바른 옷차림’과 같은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옷을 만들어 입는 내용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다. <Table 2>에서와 같이, 의생활교육에서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의복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문화 다양성시대 의복문화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과 관련된 내용인 인공지능(AI)과 패션 디자인,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생활 등의 내용과 더불어 의생활문화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의생활교육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

변화되는 산업과 직업, 평생교육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 IV.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협력이 가능한 인재가 요구된다.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체 역량 또한 강조될 것이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인식하에서의 교육내용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양성평등교육적 인식하에서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의생활교육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주로 단편적이고 기능중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생활교육에서 단순한 기능습득은 가정생활에서 당연한 복잡하고 다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의생활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규범의 중요성을 다소 등한시하였다.

앞으로 로봇이 대체되는 사회로의 변화에서 바느질의 기능만 중시하는 식의 내용 전개에서 벗어나 바느질 교육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신이 직접 바느질하여 만들어 낸 똑같은 작품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 수행한 인내심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노동의 즐거움 또한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착용한 의복에도 관심을 보이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소통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더불어 의복의 생산보다는 맞춤형 소비의 기능이 더욱 강조될 미래사회에서 의복 소비자로서의 패션 마케팅 역량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적응성 향상과 개성 표현 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3D의 입체 물품의 설계도면과 개인의 창의적인 디자인 변형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와 원하는 스타일을 맞춤형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의생활교육에서는 의류 제품의 생산과 구매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실제적인 디자인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성의 표현, 또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및 실행능력 등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육내용을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제기되었던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실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생활교육이었다.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가정과 수업시수의 축소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교육내용의 적정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축소되는 시수에 비해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많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정과교육뿐만 아니라 의생활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의생활교육 환경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융합되어 적용되는 의생활환경의 변화는 의복구매와 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의생활 전 영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시수의 부족 등으로 의생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전달이 부족하기보다는 의복구매에 있어서도 사물인터넷과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의복구매 및 소비문화와는 차별화된 협력적 소비가 보편화될 수 있으며, 가정 내 의복관리 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의복을 관리하는 방식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복관리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과정을 동반한 실천적 추론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와같은 분석을 토대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추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AI)에 인간의 감성과 환경, 의생활문화를 더하는 융·복합교육인재양성

의·식·주 기본 생활 중에서 의생활은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의생활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의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견해 차이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의생활 교육 영역 간에 분절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좀 더 상호보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생활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학습자가 실생활에 활용하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생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의생활교육에서의 인재상은 인공지능(AI)에 인간의 감성과 환경, 의생활문화를 더하는 융·복합 교육인재양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사회이다. 또

한 지능정보화사회라는 의미도 병행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Kelly, McCain, & Jukes, 2009; Lim et al., 2017). 따라서 4차 산업혁명사회의 맥락에서 비인지적 측면의 다양한 역량 중 특히 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간의 감성 역량은 먼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면서 감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Goleman, 1995).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지능,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등의 융합과 통합 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또한, 파편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의생활교육은 파편적 지식의 나열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 고유의 사유는 지식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의생활교육과정은 관련 지식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인간 고유의 사유를 촉진·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에 인간의 감성과 의생활문화를 덧붙여 의생활교육의 내용을 재구성 및 적정화하는 활동, 즉 융·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의생활교육과정이 요구된다.

## 2. 소프트웨어 역량과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연계하는 의생활교육역량 중심 교육과정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인공지능의 도래는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등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현재 지금의 교육에서 통용되는 역량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Schwab(2016, January 14)은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16가지 기술로 정보통신기술소양(ICT literacy),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 창의성(creativity), 시민문화소양(cultural

and civic literacy), 문해력(literacy), 수리력( numeracy), 경제적 소양(financial literac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리더십(leadership), 사회문화적 의식(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호기심(curiosity), 자기주도성(initiative), 끈기(persistence/grit), 적응력(adaptability) 등을 들고 있다. 또한 Seong(2017)은 지적 인지능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지적호기심, 탐구정신,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의사소통력, 경력지향성 등의 인지적 특성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리로서의 정직과 성실, 정의와 평등, 이해와 배려, 은근과 끈기,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인류 공동체 삶을 함께 공유하고자 협력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지니는 정의적 특성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융·복합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생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수업내용에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생활교육에 대한 근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핵심역량은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이다. 이 중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의생활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삶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적 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 산재해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올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학습이 강조되는 시점에 의생활교육내용은 질차적 지식과 통합교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지식의 발생화 과정, 그리고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질차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은 수동적으로 학습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창의적인 과정으로의 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통합과 같은 이론적 지식은 소통과 협력의 실천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현실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역량과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연계하는 의생활교육이 요구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역량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이해하여 코딩까지 완성하는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의미하며, 소프트 콘텐츠 역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모두 일컬어 소프트웨어 역량(Kang, 2017; Lim & Kim, 2021)이라고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확대는 신체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인체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생활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는 실천적 과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생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실천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시민성과 공동체 삶의 역량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 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패션 메이커교육과 가치 지향적인 의생활교육내용

인공지능 패션디자인의 활용과 그 가치판단에 대한 의생활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미래사회 적응력과 평생교육적 측면의 진로교육 등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은 단순 암기식의 내용이 아닌 비판적 사고, 소통과 협동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함양하려는 방안으로 메이커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메이커교육은 삶의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으로 그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메이커교육은 학습자들이 3D,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Bowler & Champagne, 2016; Jeon & Chung, 2019; Kang & Yoon, 2017; Lee & Joe, 2016).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인해 최근 의생활교육에서 관련 연구(Chung, 2019; Kim, 2019a, 2019b)가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의생활 교육에서의 메이커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바느질교육에 새로운 첨단기술과 결합한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의생활교육의 메이커교육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이커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학교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 시스템 또한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단순히 기술 중심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닌 그 이상의,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족과 조직, 커뮤니티를 긍정적으로 이끌 방법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적응성 향상과 개성 표현의 가능성의 증대는 복잡한 3D의 입체 물품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개인의 창의적인 디자인 변형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요구에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생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와 디지털 사회에서는 산재해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습득된 지식을 인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의생활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생활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느질을 중심으로 한 의생활교육이 단순한 기능성만 추구한다는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의생활교육은 실제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치

를 찾아내야 한다. 의생활교육에서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외재적 가치와 더불어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생활 교육내용이 생활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진위판단은 어렵지만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삶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가족과 조직, 공동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는 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가 도래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내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원하는 이상향에 부합하는 기술을 만들기 전에 시간을 갖고 우리의 집단 가치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합의된 교육 가치에 의해 의생활교육과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V. 결론 및 제언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생활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환경의 변화 양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가정교육의 방향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의생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비판적 실천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본 연구는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생활교육과정은 어떤 혁신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교육환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중등 의생활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미래 교육환경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가속화하였다.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실험적인 교육방식이 시도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공간이 확장되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의생활교육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생활교육과정에서는 실제적인 디자인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성의 표현, 의류 제품의 생산과 구매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으로 먼저 인재상으로는 인공지능(AI)에 인간의 감성과 환경, 의생활문화를 더하는 융·복합교육인재양성을, 다음으로 역량중심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연계하는 의생활교육을, 마지막으로 의생활교육내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패션 메이커교육과 가치 지향적인 의생활교육 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미래사회 적응력과 평생교육적 측면의 진로교육 등도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의생활교육이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생활교육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학교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요구된다. 4차 산업혁

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생활교육내용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확대는 신체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인간과 환경과의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인체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초·중등교육에서 다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의 내용을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생활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는 실천적 과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적 교육현장 적용인 의생활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Albert, M. (2015). Seven things to know about the internet of things and industry 4.0: When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manufacturing will have a very different face. *Modern Machine Shop Magazine*, 88(4), 74.
- Bowler, L., & Champagne, R. (2016). Mindful makers: Question prompts to help guide young peoples' critical technical practices in maker spaces in libraries, museums, and community-based youth organiza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8(2), 117-124.
- Chae, H. S. (2017). The role of humanit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paradigm focusing on human-centered service design. *Lingua Humanitatis*, 19(2), 233-245. doi: 10.16945/201719210
- Chung, M. K.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aker education in clothing & textil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2(4), 201-223.
- 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7). *Future education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yeonggi, Paju: Gwangmungag.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wang, S. H., & Chong, Y. S. (1995). Recognition of contents in home economics subject among pre-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7(2), 35-50.
- Jang, H. S., & Jo, P. G. (1995). Teachers' recognition in food/nutrition, textile/clothing units in home economics text book of middle schoo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7(2), 113-123.
- Jeon, Y. H., & Chung, H. M. (2019). Classification of course program types in make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9), 305-319.
- Jho, H. K. (2017).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asks of school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6(3), 286-301. doi:10.15267/keses.2017.36.3.286
- Jo, H. K., & Seo, J. E. (2021). The characteristics of post-corona era and the furniture prefer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32(1), 91-98. doi:10.6107/JKHA.2021.32.1.091
- Ju, I. S., Lee, H. J., & Han, Y. S. (2006). The recognition of students on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ical education. 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81-95.
- Kang, I. A., & Yoon, H. J. (2017). Exploring the evaluation framework of maker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541-553. doi:10.5392/JKCA.2017.17.11.541
- Kang, S. W. (2017). Directions for the secondary education to nurture software development capability.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 35(4), 34-43.

- Kelly, I. S., McCain, T., & Jukes, I. (2009). *Teaching the digital generation: No more Cookie-cutter high schools*. California: Corwin Press.
- Kim, G. A., Jung, L. H., & Shin, B. Y. (2003). Recognition on the 7th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101-120.
- Kim, S. B. (2019a). Trend analysis of maker educ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947-970.
- Kim, S. B. (2019b). Clothing makerspace construction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9), 1279-1309.
- Kim, W. R., Ryu, J. H., Kwak, N. S., & Choi, E. H. (2003).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curriculum & content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3), 75-88.
- Ko, K. I. (1990).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o, M. S. (2020). Sports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in preparation for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7(4), 1-18.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 *2009 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2009 Reorganization Development of qualification standards for home economics teachers in the competition test for selection of candidates for appointment as secondary school teachers, refinement of evaluation areas, and research on teaching ability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E:2008-6-32). Chung-buk: Author.
- Krippendorff, K. (2018).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Sage.
- Lee, E. H. (1993).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and needs in the clothing education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Gongju, Korea.
- Lee, E. H. (2000).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ractical arts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H., & Jean, K. R. (1994).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and needs in the clothing education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6(1), 43-60.
- Lee, G. N., Kim, H. J., An, Y. H., & Lee, N. G. (1996). A study on the need for curriculum contents in each sub-area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8(1), 1-10.
- Lee, J. S., Bae, H. Y., & Lee, H. J. (2009). Th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class practice rate of environmental education-relevant contents in the unit of 'clothing life' of the 7th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171-185.
- Lee, S. H., & Shin, S. O. (1997).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the learning content & method o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learning content & subjects on the area of clothing and textiles in home economics for young men: A teaching guid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9(2), 115-130.
- Lee, Y. S., & Joe, G. M. (2016). A consideration on a meaning of mak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5(4), 217-241. doi:10.21183/kjcm.2016.12.15.4.217
- Lim, J. H., Ryu, K. H., & Kim, B. C.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and teacher competenc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4(2), 5-32.
- Lim, K. H., & Kim, M. R. (2021). High school students' software capability enhancement behavior exploration: As an individualized instructional strategy for elective curriculum 'programming'.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4(1), 17-28. doi:10.32431/kace.2021.24.1.003
- Ministry of Education (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After Corona, 10 policy tasks for the transformation of future education(plan)]*.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1, June 7). *미래 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제 마련 [Launch of the future education system conversion promotion group,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ystem, facility, and digital response system for a major transformation in future education]*.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육부 공고 제2022-414호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Ministry of Education public announcement No. 2022-414. 2022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dministrative preliminary notice]*. Sejong: Author.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2022). Retrieved from <http://ncic.go.kr/mobile.revise.board.view.do>
- Oh, H. G. (2020). Analysis of major social changes and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fter COVID-19.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 38(9), 48-56.
- Pak, I. R., & Lee, E. H. (2002). A study on the sequence of contents in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39-54.
- Pak, I. R., & Lee, E. H. (2003). A study on research of necessity and practice of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3), 89-103.
- Park, C. H. (2022). The direction of curriculum and the future of teacher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oking for the identity of primary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5), 1-17. doi:10.22251/jlcci.2022.22.5.1
- Park, J. H., & Ahn, J. Y. (2018). Education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885-892. doi:10.35873/ajmahs.2018.8.5.083
- Ryoo, S. C., & Kang, T. H. (2018). Exploring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s for the era of industry 4.0. *Educational Research*, 72, 101-117. doi:10.17253/swueri.2018.72..005
- Ryu, S. H. (2014). Research trends o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n practical ar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1-17.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Paper presented at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Retrieved from [https://law.unomelb.edu.au/\\_data/as\\_sets/pdf\\_file/0005/3385454/Schwab-Schwab](https://law.unomelb.edu.au/_data/as_sets/pdf_file/0005/3385454/Schwab-Schwab)
- Schwab, K. (2016, January 14).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Retrieved Mar 3, 2017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eong, H. K. (1994).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perceived by secondary students, home economics teachers and professor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6(1), 61-72.
- Seong, T. J. (2017). Suggestions for the human character and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5(2), 1-21.
- Shin, D. S., Kim, S. H., Oh, H. J., Cheong, H. S., & Chung, H. G. (1997). The learning effects and the cognition of home economics by sex in middle school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9(1), 71-82.
- Shin, H. S., & Jung, Y. J. (2019).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0(2), 103-147.
- Song, S. S. (2017).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ustrial revolutions and the place of so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7(2), 5-40.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Retrieved Mar 3, 2017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Yeo, Y. G. (2020). Shaping the innovation policy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building creative learning capabilitie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8(4), 151-163.

## Appendix. Analysis data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curriculum from the 1st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uthor(year)	Title	Page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1-97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실과	174-185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중학교 교육과정 기술·가정	15-26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1) 기술·가정	323-331, 349-357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가정	84-89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실과	107-121
교육부(1992. 10)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 가정	161-165, 177-179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실과	178-186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중학교 교육과정 기술·가정	124-132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1) 기술·가정	311-317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1-137
문교부(1955. 문교부령 제44호 단기 4288년 8월 1일 공포)	국민학교 교육과정 실과과정	98-110
문교부(1955.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단기 4288년 8월 1일 제정)	중학교 교과과정 실업가정과 과정	147-173
문교부(1955. 문교부령 제46호 별책 단기 4288년 8월 1일 제정)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실업가정과	266-295
문교부(1963. 문교부령 제119호 별책 1963년 2월 15일 공포)	국민학교 교육과정 실과	117-127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과 VII 가정 과정	133-138
문교부(1963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정과 일반관리 가정일반	113-117
문교부(1973. 3. 1 문교부 고시 제42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제9절 실과	162-170
문교부(1973.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과 가정(여자), 가사	121-135, 149-153.
문교부(1974. 12. 31 문교부령 제350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정과, 가사	82-89
문교부(1981. 12. 31 문교부 고시 제 442호)	실과	86-99
문교부(1981. 12)	중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과 가정, 가사	76-83, 89-91
문교부(1981. 12. 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과 가정, 가사	119-122, 129-131

### <국문요약>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미래 초·중등교육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생활교육은 어떤 혁신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의 특징과 의생활교육과정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생활교육과정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과정의 방향으로는 먼저 인재상으로 인공지능(AI)에 인간의 감성과 환경, 의생활문화를 더하는 융·복합교육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역량과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연계하는 의생활교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패션 메이커교육과 가치 지향적인 의생활교육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적 교육현장 적용인 의생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12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2월 13일